

10
2022

재외동포의



특집 _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료... 18개국 75명 참가
 기획 _ "모국과 유대감 강화"... '2022 차세대해외입양동포대회' 열려
 노르웨이 입양 한인 메이 린 온... "친모 따듯이 안아주고 싶어요"
 화제 _ 미 제7 항소법원 첫 한국계 판사 존 리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세요"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한덕수 국무총리 축사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

우선 오늘 의미 있는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오시지 못했습니다. 먼 길을 오신 우리 한인회 회장님들께 따뜻한 인사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73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한 ‘세계한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각 지역의 한인회를 대표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인회장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해외 이민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와이를 향하는 첫 이민선이 떠났던 바로 이곳 인천에서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국을 떠난 여러분은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모범적인 동포 사회를 일구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기상을 떨치고 우리 국민의 큰 자량이 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이며 경제 규모 세계 10위, 무역 규모 7위에 올라있는 경제 강국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4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를 기록한 첨단 기술 강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처럼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77차 UN 총회에서 세계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내외에 밝히셨습니다. 국제사회가 겪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73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지지와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우리 국민과 함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동포 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온 국민의 힘을 모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 성장할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포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연대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함께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도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730만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02 권두언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한덕수 국무총리 축사
한덕수 국무총리
- 04 특집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료... 18개국 75명 참가
- 06 기획 "모국과 유대감 강화"... '2022 차세대해외입양동포대회' 열려
노르웨이 입양 한인 메이 린 윤... "친모 따듯이 안아주고 싶어요"
- 08 화제 미 제7 항소법원 첫 한국계 판사 존 리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세요"
- 10 한민족 공감 쿠바에 한글학교 세운 정호현 교장 "한류 이끌 인재 육성할 것"
- 12 글로벌 코리아인 한인 여성 캐롤라인 김,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원 판사됐다
올해 '장보고한상 어워드' 대상에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한인 3세 임 유리 씨, 러시아 사할린주 하원의원 당선
- 14 유공 동포 송부영 한일협회 이사장, 일본 국제교류기금상 수상
- 15 주목! 차세대 '프랑스 한인사회의 든든한 지원군' 노승혜 변호사
- 16 지구촌 통신원 BTS · 이민호의 멕시코 팬클럽이 후원한 '한인 후손' 영화 나왔다
- 18 동포소식 내년 미국 한상대회 조직위 출범... 공동대회장 5명 추대 외
- 20 문화유산 명종대왕 태실 · 해미읍성 · 마애삼존불
충남 서산사... 문화재의 보고(寶庫)
- 22 OKF 뉴스 박진 외교장관, 재외동포재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방문 외
- 24 동포 캘린더 재일동포와 일본 유학 한국 대학생, 도쿄 잼버리 대회서 교류 외
- 25 기고문 덴마크 입양 한인으로서의 삶
나자 크리스티안센(한국명 오은주)
- 26 재단공지 제20차 세계한상대회, 11월 1~3일 울산에서 열립니다 외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The 24th Future Leaders' Conference



1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료... 18개국 75명 참가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있다’ 주제로 닷새간 소통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전 세계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를 초청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주최한 ‘2022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9월 4~8일 닷새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호텔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있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 18개국의 정치·경제·법률·예술·시민단체(NGO)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리더 65명과 국내 차세대 리더 10명이 참여했다.

주요 참가자로는 2020년 포브스지가 ‘주목해야 할 30세 이하 인물 30’에 선정된 재미동포 애나 김 리라이오네스 스마트 공동설립자, 송종혁 호주 연방 검찰청 검사, 드라마 ‘파친코’에서 ‘모자수’ 역을 맡은 재일동포 3세 연극·영화 배우 박소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첼리스트 겸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텐 일리아가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 유일의 한인 피부과전문의 김예나 박사, 한국 문학번역 신인상을 받은 프랑스 변호사 노승혜, 한식을 접목한 디저트로 주목받는 프랑스 파티시에 이소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무술·문화·무용을 알리는 동포 3세 김유리, 스코틀랜드 출신의 잉글랜드 의사 김승철 등이 대회 참가를 위해 고국을 찾았다.

김성곤 이사장 “세계시민으로서 비전 모색하는 자리 되길”

9월 4일 개회식에서는 유엔 주재 한국대사를 지낸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이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 의식과 한국 청년’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을 했으며 이어 축하공연, 주제 영상 상영, 환영 만찬이 진행됐다.

오 이사장은 강연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세계시민 교육을 중점을 부여하고 있어 각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그런 취지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더욱 본격적인 세계시민 교육이 이뤄지려면 많은 국민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방향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늘 세계에 필요한 것은 세

계시민 의식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라면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국내외 차세대 리더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비전을 모색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부분 서로 처음 만나는 참가자들은 개회식에 이어 2시간 동안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2일 차인 9월 5일에는 쿠바 한인 후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의 전후석 감독이 진행하고, 배우 박소희와 작가 송애나, 이규창 키노33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참여한 공감 콘서트가 열렸다. 이후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마련한 오찬, 최태성 역사 전문 강사와 임은정 공주대 한민족 문화교류원장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9월 6일에는 한인 이민 120주년의 출발지인 인천으로 이동해 한국이민사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드는데 중요한 축을 담당할 재외동포들의 역사를 공부했다.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을 찾아 한국 정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또 대회 기간에 공감 콘서트, 인사이트 포럼, 세계시민 포럼, 지역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 “모국-거주국 간 관계 증진 앞장서겠다” 다짐

9월 8일 대회 일정을 마치며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모국과 거주국 간 관계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호주에서 온 서수아 변호사는 폐막식에서 “대회를 통해 세계 차세대 리더들과 소통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넓힐 수 있었고, 모국의 문화와 사회상을 접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참가자들 간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고, 모국과 거주국 간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이 예카테리나 프로그램 매니저는 “평소 정체성에 대한 혼자만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며 참가자들과 동질감을 느꼈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돈독히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과 가족정책 관련 국제기구인 ‘FHI 360’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곤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우리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고, 가슴 아픈 분단의 역사를 지낸 남과 북을 잇는데도 역할을 해달라”



며 “나아가 한민족 평화 공동체를 만들고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열고 있으며, 그동안 정치·경제·법률·예술·NGO 등 다양한 분야 1천500여 명의 차세대 리더가 행사에 참여했다. 대회에는 만 25~45세 영주권자, 시민권자, 장기체류자 등 10년 이상 현지에 계속 거주했거나, 재외동포 교류 촉진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참가할 수 있다. [참]

1.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식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는 참가자들
2.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의 주요 참가자들. 사진 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재외동포 3세 배우 박소희, 재외동포 애나 김 리 라이오네스 스마트 공동설립자, 첼리스트 겸 음악감독 텐 일리아, 송중혁 호주연방 검찰청 검사
3.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식에서 기조강연하는 오준 세이브트 칠드런 이사장
4.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폐회사 하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가운데)



노르웨이 입양 한인 메이 린 윤... “친모 따뜻이 안아주고 싶어요”

재외동포재단 주최 ‘2022 차세대해외입양동포대회’ 참가차 방한

“**친**모를 만난다면 맨 먼저 따뜻이 안아주고 싶어요. 노르웨이에서 잘살고 있으니 이제 자식을 입양 보냈다는 죄책감을 털어내시라고요.”

노르웨이에서 온 입양 한인 메이 린 윤(47·한국명 박지현) 씨는 10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입양돼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기에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니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외동포재단이 10월 12부터 이날까지 주최한 ‘2022 세계 차세대입양동포대회’에 참가차 방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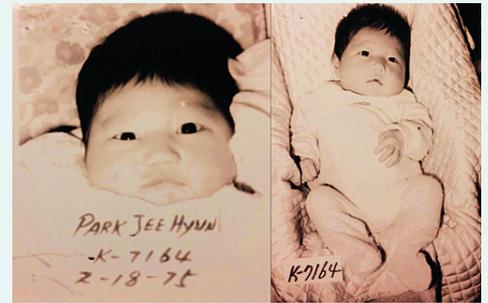
1975년 2월 18일 대구 삼성의원에서 태어난 그는 그해 3월 7일 한국기독교양자회(CAPOK)에 맡겨졌고 3년 뒤 입양됐다. 당시 친부는 박이동(1954년생), 친모는 이옥선(1955년생)이라고 기록됐다.

윤 씨는 “친부모가 본인 이름과 내 이름을 다르게 적어낸 것인지, 아니면 기록이 없어서 입양 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며 “그래서 친부모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철이 들면서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던 그는 13년 전 한국을 방문해 친부모가 버스 기사 조수와 안내양으로 일했던 대구 서부정류장을 찾았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삼성의원도 사라진 지 오래라 부모를 찾을 길이 막막했으나 2017년 DNA 검사를 통해 마침내 친부를 찾았다.

윤 씨는 “나와 나이 차이가 18살밖에 나지 않는 친부는 당시 딸이 태어났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당황도 했지만, 곧 받아 들였고 지금은 서로 연락하며 잘 지낸다”고 소개했다. 그는 “친부를 만나서 성이 ‘서’ 씨라는 것을 알고 입양 서류의 기록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친부도 친모가 누군지 기억이 없다고 해서 찾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런데도 그는 친모 찾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윤 씨는 아기 때부터 왼손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바깥으로 굽어있었



친부모 찾기 경험을 담은 책 'TOGETHER AT LAST'를 발간한 노르웨이 한인 입양인 메이 린 윤 씨(왼쪽). 메이 린 윤 씨가 출생 3년 후 한국기독교양자회에 맡겨질 당시 사진. 1975년 2월 18일 생이고 이름은 박지현이라고 적혀 있다.

다. 혹시라도 친모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을 나와 카타르 항공사에 20여년 재직하던 그는 2년 전 코로나19 사태로 퇴직했고,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오슬로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윤 씨의 다른 두 형제도 입양인이다. 한 명은 한국에서 입양됐고 또 다른 형제는 베트남에서 왔다. 양부모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알려주었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친부모를 찾겠다고 했을 때 양부모는 흔쾌히 응원해주었다”며 “내게는 양쪽 다 가족”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윤 씨는 “새직장의 한국 직원들이 가족처럼 대해줘 모국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고 있다”며 “내 아들이 엄마의 나라를 잊지 말고 살라고 이름도 ‘대한’이라고 지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노르웨이에서 성장했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씨는 최근 자신의 친가족 찾기 경험을 담은 책인 ‘마침내 함께’(TOGETHER AT LAST)를 한인 입양 단체인 325Kamra를 통해 발간하기도 했다. 윤 씨는 “경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뿌리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친모 찾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미 제7 항소법원 첫 한국계 판사 존 리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세요”

미 상원의원이 ‘아메리칸 드림 상징’ 으로 추천한 파독 광부·간호사의 아들



1

“**크** 꿈을 갖고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직선’으로 그럴 수 없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넘어지더라도 멈추지 말고 다시 도전하세요. 삶은 놀라운 기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제7 항소법원의 첫 아시아계 판사, 최초의 한국계 판사가 된 존 리(54·한국명 이지훈) 판사는 9월 19일(현지시간) 시카고 도심의 덕슨 연방법원 빌딩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젊은이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취임 선서 일주일만인 리 판사는 “중요한 자리에 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차세대 특히 젊은

법조인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리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종신직인 연방 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오른 지 10년 만에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리 판사를 일리노이·위스콘신·인디애나주의 7개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제7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고 연방 상원은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9월 8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가결했다.

리 판사는 9월 12일 다이앤 사이크스 제7 항소법원장 주재로 취임 선서를 했다. 공식 취임식은 현재 준비 중이며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소감을 묻자 리 판사는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명자 바이든 대통령과 추천인 딕 더빈·태미 덕워스 두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 지명부터 상원 인준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인준 확정 후 가족들은 안도하며 기뻐했다”며 “하지만 마무리해야 할 지방법원 일이 너무 많아 한동안 별다른 실감을 못 하고 지냈다. 아내와 둘이 오붓한 저녁 외식을 하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했다”고 말했다.

리 판사의 집무실은 시카고 연방법원 21층에서 항소법원 판사들이 쓰는 26층으로 다섯 층 더 올라갔다.

업무상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에 대해 리 판사는 “재판(trial)을 주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변론, 검찰 진술, 증인 신문 등을 듣는 일이 드물어지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심리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연방 지원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히 관련 분쟁은 1심 법원이 어디든 상관없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이 맡기 때문에 특히 침해 소송을 다룰 일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리 판사가 연방법원 종신 판사에 오르기 전 시카고 대형 로펌에서 특허·지적 재산권·통상규제·반독점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점을 상기하자 “아쉬움은 없다.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더 흥미진진하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하고(fair) 세심한(careful) 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2



3

도 변함없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사건 심리에 임할 생각"이라며 "소송 당사자들의 말을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젊은이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 주고파… 공정·세심한 판사 될 것”

‘최초’ 타이틀에 대해서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영감을 줄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나도 젊은 변호사 시절, 법정에서 소수계 판사를 보기만 해도 힘이 났다”며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리 판사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 꿈꾸지 않으면 이를 것이 없다”며 특히 이민자 가정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는 큰 기회가 열려있는 땅,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날이 많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운다”며 “사실 나도 크고 작은 좌절들을 겪으며 성장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고 조언했다.

리 판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을 통해 독일에 광부로 파견한 이선구(83) 씨와 간호사 이화자(80) 씨의 맏아들로 독일 아헨에서 태어났다. 생후 3개월 무렵 외가가 있는 한국 대전으로 보내져 외할머니 손에 자라다 네 살 때 부모와 함께 시카고에 이민했다. 초기 이민 생활은 쉽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각각 신발공장과 병원으로 출근해야 하기도 했다. 이런 일화와 관련해 리 판사를 연방 판사로 추천한 더빈 상원의원은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미국의 이야

기”라고 소개한 바 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리 판사는 하버드대학(1989년 졸업)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1992년 졸업)을 졸업하고 법무부 환경천연자원국 소송 전담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시카고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 ‘그리포 앤드 엘든’, ‘프리본 앤드 피터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연방 판사로 발탁됐다.

리 판사는 현재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부인 준 리(51·한국명 이윤정·마취과 의사) 씨와 살고 있다. 10년 전 연방 지원 판사 취임 당시 중학생이던 딸(24)은 대학원생, 초등학생이던 아들(20)은 대학생이 돼 각각 타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음 목표를 묻자 그는 “좋은 판사가 되는 것이 변함없는 목표”라고 답했다. **창**

1. 미국 연방 제7 항소법원의 첫 아시아계 판사가 된 존 리
2. 시카고 연방법원 집무실을 배경으로 선 존 리 판사
3. 시카고 연방법원 집무실에서 언론 인터뷰하는 존 리 판사

쿠바에 한글학교 세운 정호현 교장 “한류 이끌 인재 육성할 것”

재외동포재단 지원받아 9월 초 개교... 청소년·일반인 180명 학생 몰려

“쿠바 한인 후손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려 양국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9월 5일 쿠바 수도 아바나의 한국문화센터에서 개교한 한글학교를 이끄는 정호현(50) 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인 후손들이 한국어를 배워 통역·가이드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학 연구자도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에는 현재 1천여 명의 한인 후손이 거주하고 있다. 쿠바에 한인이 처음 정착한 것은 1921년 3월 25일이다. 멕시코에 살던 한인 277명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쿠바 땅을 밟았고, 이들은 에네켄(애니깽·선인장의 일종) 농장에서 일하며 뿌리를 내렸다.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현지화됐지만, 아바나의 한국문화센터(이전 한인후손문화원)를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명맥을 이어왔다. 2014년 쿠바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영주권을 획득한 정 교장은 쿠바를 알리는 영상을 만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다.

쿠바에서는 2012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아바나국립대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2018년까지 운영했고, 한인 후손들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으로 문을 닫았다.

이번에 문을 연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주멕시코 공관으로부터 재외교육기관 등록증을 받은 공식 학교다. 학교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문의가 쏟아졌고 180명이 등록해 7개 기초반과 중급과정 2개 반으로 학급을 편성했다. 한인 후손뿐만 아니라 현지 한류 팬들도 몰려 중고생·대학생이 20%고, 나머지가 일반인이다.

한국어 교재는 세종학당재단이 지원했고, 멕시코 한글학교에서도 교육 교재와 학교 비품 등을 후원했다.

정 교장 “한인 후손에게 정체성 심어주고, 한-쿠바 가교 되도록 돕겠다”

정 교장은 “2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쿠바인 교사 3명과 현지 거주 한국인 3명이 특별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단순 물품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해외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1



2

1. 쿠바 수도 아바나의 한국문화센터에 한글학교 세운 정호현 교장
2. 9월 5일 개교한 쿠바 아바나의 한글학교 수업 장면
3. 9월 14일 쿠바 아바나의 한국문화센터에서 열린 '제77주년 대한민국 광복절 기념행사'
4. 한글학교가 개설된 쿠바 아바나의 한국문화센터 전경



3

그는 “대규모 원유 저장 창고 화재로 극심한 전력난도 겪고 있어 개교일부터 정전사태를 맞았고, 에어컨을 쓸 수 없어 짐통에서 수업하는데도 다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열심”이라고 뿌듯해했다.

정 교장은 개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카리브협의회가 발전기를 지원해주기로 해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다.

그는 “K-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한국어도 배우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도 가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다”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 8일에는 한글날을 기념해 ‘쿠바 청소년 꿈 축제’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장기적으로는 한국문화센터와 함께 ‘한국 문화 주간 행사’, ‘한류 팬클럽 행사 지원’, ‘쿠바 도서 박람회에 한국 부스 개설’ 등에도 나선다.

정 교장은 “쿠바에는 ‘아르코’(ArtCor), ‘쿠바아모코레아’(CUBAamoCorea) 등 여러 개의 한류 팬클럽이 활동하고 있으



4

며, 쿠바중앙TV에 ‘K-팝’ 세션이 있고 매주 2시간 K-팝만 틀어주는 채널도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은 미수교국이지만 조만간 한류 영향으로 한국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질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때를 대비해 학교가 한국 문화를 발신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인 여성 캐롤라인 김,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원 판사됐다 가정법 변호사 출신으로 첫 한인 여성 주법원 판사 맡아

인구 1천450만 명으로 캐나다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온타리오주의 법원 판사에 한인 2세 여성이 처음으로 임명됐다. 주인공은 가정법 변호사 출신인 캐롤라인 김(한국명 김동연) 판사로,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의 추천과 주 총독의 임명으로 9월 29일(현지시간) 업무를 시작했다.

온타리오주 홈페이지와 김 판사의 아버지 김근래 불우어린이후원회장, 토론토 한국일보에 따르면 아동권리와 가정법 변호 업무를 지속해온 경력을 인정받아 한인 여성으로 판사에 처음 임명됐다.

온타리오 법원은 주법원(Court of Justice)과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돼 있다. 주법원은 주로 1만 달러 미만의 소액재판과 경범죄, 가정법 등을 다룬다.

주 법원 판사가 되려면 최소 10년간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정년은 65세이지만 75세까지 재직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토론토에서 출생한 그는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후 유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동 대학 법대를 졸업했으며 2008년부터 가정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률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희생자들을 대리했고, 로펌에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도 일했다. 또 인도 푸네에 있는 정신보건법 정책센터에서 국제인권법을 강의하고, 워털루지역 성폭력지원센터에서 집행 이사를 맡고 있다.

올해 '장보고한상 어워드' 대상에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국회의장상에는 이숙진 제마이홀딩스 회장 등 6명 선정

올해 '장보고한상 어워드' 대상에 승은호(80)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회장이 선정됐다.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과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9월 1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제7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심사위원 회의를 열고 대상 수상자로 승 회장을 뽑았다.

승 회장은 1969년 인도네시아에 이주해 53년 동안 대규모 조림을 조성하고 원목 개발과 합판, 제지, 티슈 공장 등을 건립하며 목재 가공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 또 방송과 상용차 트럭, 버스 생산과 바이오가스·소수력 등 에너지 발전 사업, 금융과 물류, 부동산 사업 등 30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코린도 그룹을 세워 종업원 2만 명,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종건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1998년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을 맡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 비즈니스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2003년 아시아 한상연합회를 설립해



15년간 회장을 맡아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섰다. 이런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과 모란장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로 훈장을 수훈했다.

올해 국회의장상은 이숙진 호주 제마이홀딩스 회장, 문화체육부 장관상은 최경주 KJ재단 이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이마태오 말레이시아 KMT 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김경옥 베트남 갈텍스인터내셔널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장재중 필리핀 유니그룹 회장이 각각 차지했다.

장보고한상 어우드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영토를 해외에 확장한 공로가 큰 재외동포 경제인 가운데 한인사회의 발전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앞장선 한상을 '21세기 장보고'로 인증하는 상이다. 7회 수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16개국 37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한인 3세 임 유리 씨, 러시아 사할린주 하원의원 당선 “초등학교서부터 뿌리 교육으로 한인 위상 강화하겠다”

“사할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한인의 존재를 널리 알려 차세대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9월 11일 러시아 사할린주 주의회 선거에서 임기 5년의 두매(하원) 의원에 당선된 임 유리 블라디미로위츠(51) 씨는 9월 26일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역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향토학 공책’을 만들어 초등학교에서부터 뿌리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할린주 두매의원 선거에서 한인은 임 씨 외에 최 유리 광수위츠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한인 3세인 임 의원은 이날 사할린주 의회 총회에서 경제발전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그는 “노동법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력을 살려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임 의원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성장해 해군 공학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장교로 사할린에서 복무했고, 전역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통신 교육으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부친뿐 아니라 한인인 아내도 고향인 사할린을 그리워해 2010년 사할린으로 돌아온 그는 건설회사를 경영하다가 선거에 나섰다. 당선되자마자 선거구인 네웬스크 지역 교육부와 초등학교에서의 향토학 수업 도입을 추진한 그는 “자신이 사는 지역·도시 등 지역 역사와 소수민족 이주사 등에 대해서 알게 되면 고향과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자부심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친이 한인이고 모친은 러시아 현지인인 그는 “한인 친척도 많고 친구도 대다수가 한인이기에 내게도 같은 피가 흐른다고 믿고 있다”며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 지난 2년간 사할린주한인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펼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



송부영 한일협회 이사장, 일본 국제교류기금상 수상

50년간 문화예술 분야 한일 교류 공로

“더 많은 청년이 양국을 상호 방문할수록 한일 관계는 밝아질 것입니다. 우호와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본 외무성 산하의 공공외교 기관인 국제교류기금이 주최하는 2022년도 ‘국제교류기금상’ 수상자로 최근 선정된 한일협회의 송부영 이사장은 9월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교류에 작은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해온 일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교류기금은 1973년부터 매년 학술·예술 등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일본과 외국 간 상호이해 촉진에 공헌하고 또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상을 주고 있다.

한국인으로는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어령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 등이 이 상을 받았다.

올해는 캐나다 출신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로베르 르빠주와 인도네시아 시인이자 화가인 고에나완 모하메드가 받았다. 단체로는 한일협회가 유일하다. 시상식은 10월 19일 일본에서 열렸다.

1971년 설립돼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한일협회는 50여 년간 일본어 교육, 한일 청소년 교류, 일본 유학·취업 박람회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송 이사장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학력 경시대회, 대학생 일본어 번역대회,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남성을 구하려다 숨진 유학생 이수현을 기리는 ‘이수현 기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업을 통해 일본과의 직·간접 교류에 나선 청년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일본 유학·연수 전문기업인 해외교육사업단 대표이기도 한 송 이사장은 협회 부회장을 거쳐 2001년 회장을 맡았고, 이사장체제로 바꾼 2006년부터 협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한일관계에는 역사 인식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색되는 일이 잦지만 그럴수록 민간교류는 중단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미래를 이어갈 차세대가 선입견 없이 올바르게 서로를 인식하고 교류하도록 돕는 게 협회의 활동”



송부영 한일협회 이사장(가운데)

이라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차별이 시작된다”며 “서로를 배우기 위해 교류를 하면 할수록 양국 관계는 좁혀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일협회는 초대 회장이었던 황종률 전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문홍주 전 문교부 장관,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 정일권 전 국무총리 등 한국 사회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대표를 맡아왔다”며 “그만큼 한일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 각종 교류 활동이나 대회 등에 참가한 청년들이 대학교수가 되거나 전문가가 돼 활약하는 것을 볼 때가 가장 보람 있는 그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일 교류는 양국 미래의 우호 관계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 이사장은 “앞으로도 정치 상황 등에 흔들리는 일 없이 꾸준히 양국 선린관계 구축에 협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프랑스 한인사회의 든든한 지원군’ 노승혜 변호사

언어 장벽 부닥치는 한인에게 법률 서비스... 번역가로도 활동

“프랑스의 복잡한 법률과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한인 1만여 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상법과 법률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는 노승혜(36) 씨는 ‘프랑스 한인 전문 변호사’를 자처한다.

그는 9월 4일 서울에서 개막한 재외동포재단 주최 ‘제24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차 방한했다. 이 대회에는 18개국 65명의 차세대 한인 리더가 참가했다.

노 변호사는 9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 연차도 짧고,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홀로 일을 하기에 자연스럽게 한인 사회와 연결됐다”며 “한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그리 많지 않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용 바이올린을 생산하던 할아버지와 대를 이어 현악기 수리를 했던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난 그는 아버지가 1991년 현악기 공부를 위해 프랑스에 갈 때 따라갔다가 그 나라와 인연을 맺었다.

3년 뒤 귀국해 서래마을에 있는 프랑스 국제학교에 다녔다. 다시 프랑스에 날아가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베르사유 변호사 연수원에서 공부한 뒤 2017년 변호사가 됐다.

아르케 법무법인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파리에서 ‘Syung-hea Noh’ 이름을 내걸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그는 주로 한인들의 가정 문제, 식당 및 회사 인수 문제, 프랑스에 진출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을 상담하고 변호한다.

“대부분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프랑스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계약과 본계약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해 저를 찾아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법률문제를 이해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노 변호사는 틈날 때마다 재불한인여성회 등 한인 단체가



프랑스에서 ‘한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노승혜

주최하는 강연에 참여해 민법 등을 알려주는 봉사도 한다. 그는 최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관습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기여를 하기도 했다.

한국 여성이 프랑스 남성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낳은 자녀를 친자식으로 입양하려고 했다. 프랑스 법원은 한국 대사관이 발행하는 이 증명서를 요구했지만, 대사관에서는 지금까지 이 증명서를 한 번도 발급한 적이 없었다. 이에 노 변호사는 대사관을 설득

해 한국에는 없는 관습 증명서를 이들 부부에게 발급해 주도록 했다.

그는 이런 사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를 모아 곧 책을 출판하겠다는 의욕도 내비쳤다.

그는 출판과 무관하지 않다. 2009년 김현수 작가의 ‘산책하는 일들의 5가지 즐거움’이라는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최한 공모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4년 만에 고국을 찾은 그는 원래 한인들의 언어·문화적 갭을 줄이는 통·번역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밝혔다. 기회가 된다면 법원에 공인번역사도 신청할 계획이다.

변호사를 하면서 매번 후회하고 매번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한인들을 위한 일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 좋아서 하는 일”이라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분야 업무를 보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다.

현지인과 결혼해 아이 한 명을 둔 노 변호사는 프랑스에서 성장할 아이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일이 고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같은 한국 정부 초청 행사가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고국의 초청 행사는 “너에게는 찾아갈 집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BTS · 이민호의 멕시코 팬클럽이 후원한 ‘한인 후손’ 영화 나왔다

23분 분량 단편 다큐 영화… 현지 이주 한국인 2~5세대들 인터뷰

“**한**국으로 돌아갈 길이 없었던 애국자의 자녀, 손자, 증손자들이 이곳 멕시코에서 슬픔의 역사를 공유하며 뿌리를 내렸지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멕시코인들이 117년 전 멕시코 땅을 밟은 이주 한국인들의 후손을 인터뷰해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했다.

‘데센디엔테스 후손’ (데센디엔테스<Descendientes>)는 스페인어로 후손이라는 뜻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23분 분량. 1905년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과 그 이후 세대의 발자취 등을 후손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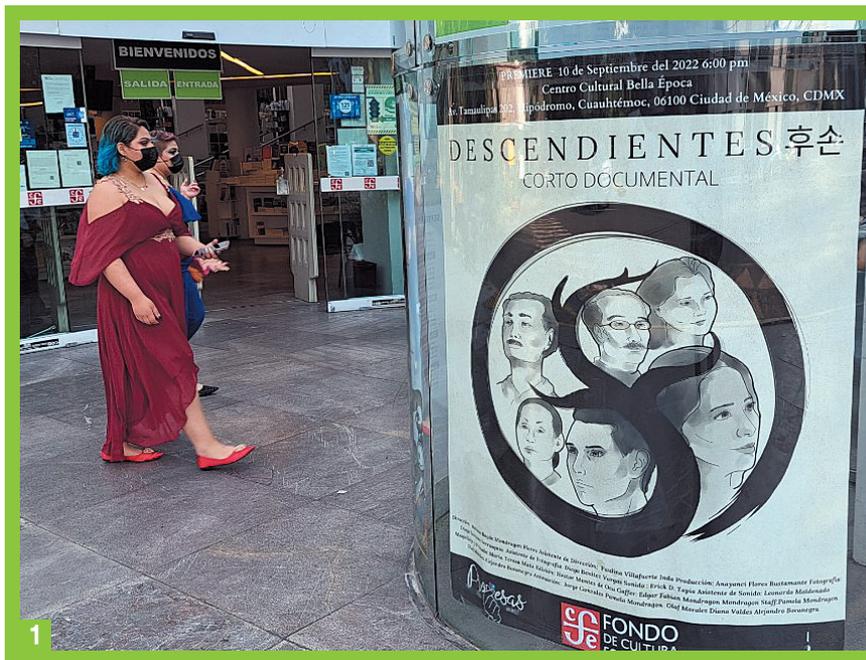
인터뷰에는 2~5세 한인 후손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 있거나 가족에게서 전해들은 1세대 선조의 굴곡진 일상과 함께 자신이 겪어야 했던 정체성의 혼란을 재구성했다.

화면 안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눈시울은 하나같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누군가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멕시코에서 영화를 전공한 멜리사 몬드라곤 감독은 9월 12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매우 다른 나라에서 성장한 후손들의 이야기”라며 “멕시코에 첫 한국인이 도착한 이후 117년 동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적 혼합을 묘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감독 “후손들, 고된 노동과 슬픔 공유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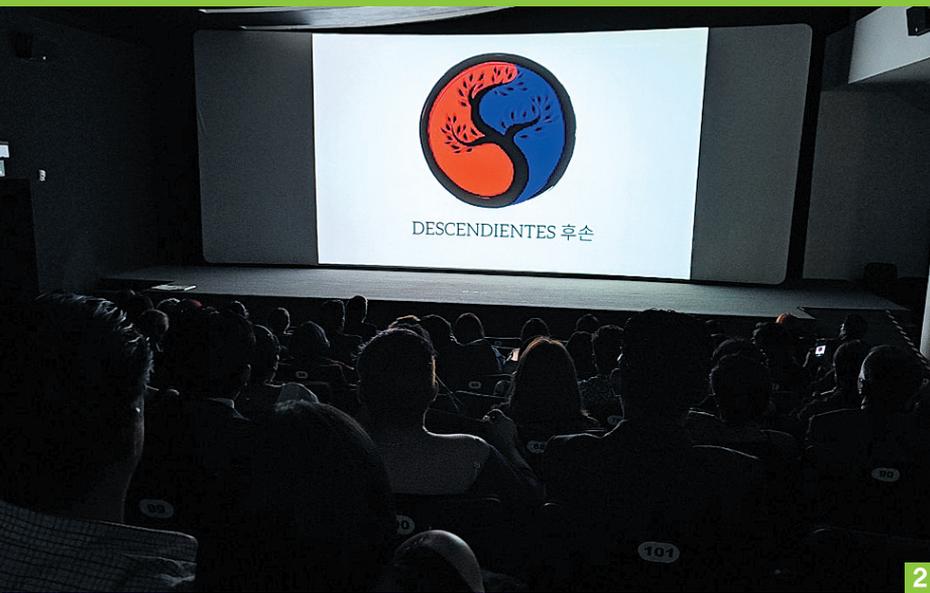
지난 3월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한 멜리사 감독은 19명의 제작진과 함께 5개월 동안 촬영과 편집에 매달렸다고 한다. 하루에 17~18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작업했다고 그는 전했다.



멜리사 감독은 “한인 후손들은 선조들의 고된 노동과 슬픔의 일대기를 공유하며 멕시코의 한 공동체로 성장한 것을 목격했다”며 “한국과 멕시코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교 60주년이 된 올해 특별한 작품을 남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9월 10일 멕시코시티 베야에포카 문화센터에서 열린 상영회는 100여 명이 자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멕시코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유순명·이명원)의 자손(5세)으로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유현수(가브리엘 유·멕시코시티 한인 후손 회장) 씨는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을 잊지



2



3



4

1. 9월 10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베아에포카 문화센터 앞에 다큐 영화 '데센디엔테스 후손'의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2. 멕시코시티 베아에포카 문화센터에서 상영되는 다큐 영화 '데센디엔테스 후손'
3. 다큐 영화 '데센디엔테스 후손'의 감독을 맡은 멜리사 몬드라곤(오른쪽)
4. 다큐 영화 '데센디엔테스 후손'을 만든 제작진들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의 희생자를 선조로 둔 후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내용만큼이나 제작 과정도 특별하다. 방탄소년단(BTS)과 배우 이민호의 멕시코 팬클럽 '프로메사스 미노스 아미'(Promesas MINOZ ARMY)가 재정 후원을 맡았기 때문이다. 프로메사스 회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계 스타의 이름을 걸고 선행을 펼치거나 한국·멕시코 간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프로메사스 측은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무척 자랑스럽다"며 누군가 필요한 곳에 다가가 돕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 강점 직전인 1905년 4월 한인 1천33명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현재 인천항)을 떠나 40여 일의 항해 끝에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도착했다. 이들은 선박용 밧줄을 만드는 재료인, 일명 '애니깁'이라고도 알려진 에네켄(선인장의 일종) 농장으로 분산돼 고된 노동을 했다. 계약 만료 뒤엔 한일병탄으로 돌아가야 할 나라를 잃어버린 채 멕시코 또는 쿠바로 흩어져 정착했다. **▶**

이재림 연합뉴스 멕시코 멕시코시티 특파원

내년 미국 한상대회 조직위 출범... 공동대회장 5명 추대

윤만 · 이종열 · 김형률 · 제임스 안 · 이경철 대회장, 10만 달러 기부 약속

내년 10월 11~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황병구)와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회장 노상일) 등이 주최한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황병구 회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9월 22일(현지시간) 애너하임 메리어트 호텔에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며 "공동 대회장으로 추대된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추대된 공동 대회장은 윤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부이사장, 이종열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고문, 김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 회장, 제임스 안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다. 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지난 4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1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미국 오렌지 카운티를 최종 선정하는 모습

들은 각 10만 달러(약 1억3천900만원)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조직위 부위원장에는 조원형 미주뷰티서플라이총연합회 회장, 권영현 전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뉴욕지회장, 최영석 월드옥타 로스앤젤레스지회장과 김무호 전 지회장, 홍대수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위촉됐다.

황 조직위원장은 "현재 컨벤션과 숙박 시설 예약 등 대회 준비를 잘하고 있다"며 "내년 해외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한상대회를 200만 재미동포와 각국 재외동포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는 미국 50개 주 내 78개 도시에 설립됐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이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단체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 엔지서 자축행사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주)가 9월 3일 성립 70주년을 맞았다. 연변주는 이날 밤 엔지시에서 30분간 12만8천개의 폭죽을 터뜨리는 불꽃 축제를 열어 70주년을 자축했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연변주 곳곳에서 대형 문예 공연, 전시회, 투어 이벤트, 김치담그기 대회 등 다채로운 경축 행사가 열렸다. 9월 2일 개막한 두만강(중국 명칭 투먼장)지구 국제무역상당회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됐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 9월 3일 성립됐다. 엔지, 투먼, 훈춘, 룡징, 허룽, 둔화 등 6개 시와 왕칭현, 안투현 등 2개 현으로 이뤄졌으며 면적은 4만2천700km²다.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는 둔화시 야경 모습(인민일보 제공)

당시 70.5%에 달했던 연변주의 조선족 비중은 갈수록 낮아져 2020년 기준 30.8%(59만7천여명)로 떨어졌다. 반면 한족 비중은 66%로 늘었다. 일자리를 찾아 한국과 중국 동남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변을 포함, 중국 내 전체 조선족도 2000년 192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현재 170만명으로 줄었다.

최근 중국이 중화 민족주의와 국가 통합을 강조하면서 연변의 자치주 지위와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변주는 지난 7월 25일 문자 표기 때 중국어를 우선으로 하는 '조선 언어문자 공작 조례 실시 계획'을 시행했다.

멕시코 한인 역사 상징 '에네켄 기계' 인천 이민사박물관에 전시

피게로아 주한멕시코 대사 “고난 딛고 정착한 한인들은 모두 영웅”

멕시코 한인 이민 역사의 상징인 에네켄 기계가 인천시 중구 소재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복원돼 9월 20일 공개됐다. 인천시립박물관(관장 유동현)은 이날 이민사박물관에서 '에네켄 기계 전시관' 개관식을 열었다.

에네켄은 선인장과 식물로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선박의 로프나 포대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다. 에네켄 기계는 로프 제작에 필요한 섬유질을 추출했다.

개관식에는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멕시코 대사,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한병길 한중남미협회 회장,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과 주한 멕시코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피게로아 대사는 축사에서 “1905년 멕시코에 첫발을 내디딘 1천여 명의 한인들은 25개 에네켄 농장으로 흩어져 고된 일을 하면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렸다”며 “그러면서도 고국을 잊지 않고



인천시 중구 한국이민사박물관에 전시된 에네켄 기계

정체성을 지켜온 이들은 모두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날 3만여 명에 이르는 한인 후손은 한-멕시코 간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에네켄 기계는 2005년 멕시코 한인 후손과 주한멕시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인들이 일했던 메리다 지역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입

수해 한국으로 들여왔다”며 “수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올해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사업으로 복원·보존처리 작업을 하고 별도 야외 전시관을 지어 선보이게 됐다”고 소개했다.

전시관에는 에네켄 기계 전체에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 에네켄 잎을 운반하는 도르래 시스템, 잎의 섬유와 껍질을 분리하는 본체 등이 진열됐다. 아울러 전시관 모니터는 실제로 기계에서 섬유질을 추출하는 영상을 소개한다.

“180개국 750만 재외동포는 공공외교 펼치는 민간외교관”

재외동포재단 개최 공공외교 세미나서 발표자들 강조

“180개국에 거주하는 750만 재외동포는 단순한 해외 이민자가 아니라, 거주국에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를 펼치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9월 1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주포럼 세션으로 개최한 공공외교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재외동포는 거주국과 모국을 잇는 교류로 한국문화 전도사라는 사명감 아래 거주국에 한국 알리기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외교’를 주제로 김성곤 이사장, 유미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퍼스트레이디,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재일동포 3세 배우 박소희가 발표자로 나섰다. 김 이사장은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소통으로 우리의



9월 15일 제주포럼 공공외교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유미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퍼스트레이디

역사·문화·정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해 외교 관계 증진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해 긍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미 호건 여사는 “미국 이민 33년이 흘렀지만, 한순간도 한국을 잊은 적이 없다”며 “뿌리를 기억해 차세대에 우리 문화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호건 여사는 “2015년부터 미국

역사상 첫 한국인 메릴랜드주 퍼스트레이디로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한국 알리기”라며 다양한 관련 활동을 소개했다.

박소희 배우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한국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고 모범이 되게 행동해야지, 그러되게 살면 한국도 나쁘게 바라본다고 당부했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명종대왕 태실 · 해미읍성 · 마애삼존불 충남 서산시... 문화재의 보고(寶庫)

충남 서산시 운산면과 해미면을 잇는 619번, 647번 지방도 주변에는 조선 명종대왕 태실(胎室)과 비(碑), 해미읍성, '백제의 미소' 서산마애삼존불 등 백제·고려·조선의 귀한 문화유산이 줄줄이 펼쳐져 있다. 한 지역의 문화재가 이처럼 다채로울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조선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조선 13대 명종대왕(재위 1545~1567) 태실과 비는 2018년 3월 조선 태실 유적 중 최초로 보물(제1976호)로 지정됐다. 태실은 조선 왕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를 향아리에 봉안한 뒤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태를 보관한 작은 돌방이다. 조선은 태를 아기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소중히 여겼다. 태실 문화에서 생명 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명종 태실이 보물로 지정된 것은 약 500년 전 처음 지어진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원형대로 잘 보존돼 있기 때문이다. 명종 태실과 비석은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에 있다.

오르는 언덕길은 잘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잡초를 짧게 깎아 놓아 발걸음이 상쾌했다. 주차장에서 15분쯤 올랐을까. 마침내 명종 태실과 비에 다다랐다. 산이라고 하기엔 작은, 태봉산 정상 한가운데 태실이 있었다. 태실 주변 난간석 바깥에 비가 3개 건립돼 있다.

명종은 종종의 둘째 아들이자, 인종의 동생이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수렴청정했던 어머니 문정왕후 사후 선정을 펴려 노력했다. 태실은 받침돌, 태를 넣은 둥근 몸돌, 지붕돌로 이루어져 있다. 3기의 비는 태실이 건립됐던 1538년, 명종 즉위 이듬해인 1546년, 숙종 때인 1711년에 각각 제작됐다. 일제는 명종의 태를 넣은 태향아리를 1928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겼다. 이 향아리는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됐고, 지



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조선 왕조 태실의 상당수는 다른 자리로 옮겨졌거나 변형됐다. 관련 기록도 유실된 경우가 많다. 반면 명종 태실은 건립 후 482년 동안 처음 지어진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실록에 관련 기록도 상세히 남아 있다. 학계는 명종 태실이 한국 미술사의 태실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본다.

잘 보존된 해미읍성

해미읍성은 원래 요새였다. 600년 연륜 탓일까. 지금의 해미(海美) 성곽은 무미건조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건축물로 느껴진다. 해미읍성의 돌 성곽은 600여 년의 시간과 역사를 머금고 있다. 전북 고창읍성, 전남 순천읍성과 함께 '조선 3대 읍성'으로 불린다. 성곽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읍성을 꼽으라면 단연 해미읍성이다. 해미 성곽의 돌들에 오랜 세월이 녹아들어서인가. 노르스름한 돌덩이 하나하나가 투명한 가을 햇살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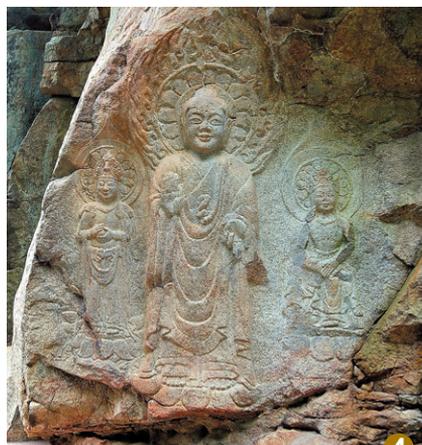
을 받아 고색창연하게 빛났다.

성안 잔디밭 자리는 옛날 병사 훈련장이었다. 이 성은 조선 전기 충청병마절도사의 병영성이었다. 해미읍성은 태종 17년(1417)부터 세종 3년(1421) 사이에 축조됐다. 읍성은 지방 관청과 주민이 사는 곳을 에둘러 쌓은 성이다. 성이 잘 보존된 것은 처음부터 잘 지어졌고, 성을 둘러싼 큰 전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견고한 축성에는 '공사 책임제'의 영향이 컸다. 해미성 축조 부역은 부근 고을에 할당됐는데, 각 고을은 책임 공사의 표시로 성돌에 고을 이름을 새겨넣었다.

해미성은 천주교 박해와 순교의 아픔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천주교 박해는 병인양요(1866)와 독일인 에른스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묘를 도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1868)을 계기로 심해졌다. 군사 중심이었던 해미읍성은 충청지역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여 처형했는데 그 수가 1천 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해미읍성을 찾아 순교자들을 기렸다.

'백제의 미소' 서산마애삼존불

기적 같은 보존의 '대명사' 서산마애여래삼존상(서산마애삼존불상). 1천500년의 문화유산 보존을 가능케 했던 건 한국인의 과학 유전자였을까, 인문적 역량이었을까. 돌에 새겨진 세 부처의 미소는 온화하고 은은하고 넉넉했다. 서산마애여래삼존상의 미소는 '백제의 미소'라고 불린다. 더 신비로운 것은 빛의 방향,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미소가 다르게 보이고 표정이 바뀐다는 것이다.



4

'마애'(磨崖)란 암벽에 조각했다는 뜻이다. 서산 가야산 용현계곡 입구 왼쪽 층암절벽에 새겨진 삼존불은 국내 마애불 중 가장 오래되고 조각미가 걸출하다. 1958년 발견됐고, 4년만인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삼존불은 가운데 여래입상, 오른쪽 보살입상, 왼쪽 반가사유상으로 추정되는 세 보살상으로 구성돼 있다. 조각 연대는 백제 후기로 추산된다. 반가사유상의 코, 팔이 조금 부서진 것을 빼면 삼존불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 몸체와 배경 면의 조각 선은 뚜렷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불상이 지나온 1천500여 년의 시간을 고려하면 보존 상태는 경이롭다. 그 이유로 불상의 위치와 방향을 끔직한 전문가가 많다. 마애삼존불은 처마 역할을 하는 큰 바위 아래 있고, 조각 면이 80도 가량 기울어져 비바람이 정면으로 들이치지 않는다. 석공은 조각할 때 이런 과학적 요소까지 고려했을까. 백제의 미소를 길이 전하고 싶어서였으리라.

당국은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 1974년 보호각을 설치했다. 그러나 마애불에 백화현상이 생기고, 자연 채광에 의한 백제의 미소를 볼 수 없게 됐다. 결국 2006년 보호각을 32년 만에 해체했다. 석불은 용현계곡에서 불과 200m 정도 올라간 곳에 있다.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에서 마애불이 오랫동안 원형을 유지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 [창](#)

1. 충남 서산시에 있는 조선 명종대왕 태실 및 비
2. 명종대왕 태실 주변 3개의 비석
3. 600여 년 역사 자랑하는 서산 해미읍성
4. '백제의 미소'를 머금은 서산마애삼존불

박진 외교장관, 재외동포재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방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2청사에 있는 산하기관 재외동포재단(OKF)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을 잇따라 방문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기관이 제주도에 이전한 지는 4년여 됐으며, 외교부 장관이 이곳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김성곤 OKF 이사장과 이근 KF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직원들과 기념 촬영도 했다.

재외동포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이 합심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달라고 김성곤 이사장과 임직원들에게 부탁했다.



박진 장관(앞줄 왼쪽 4번째)이 9월 15일 제주도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방문해 김성곤 이사장(앞줄 왼쪽 5번째) 등 재단 임직원들과 함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응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에 중국 주양수의 '치매꽃'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에 중국동포 주양수 씨의 '치매꽃'이 선정됐다. 재외동포재단은 이 작품을 포함해 전 세계 재외동포의 문학적 감성과 향수를 고양하는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40편을 선정해 9월 23일 발표했다.

시 부문 우수상에는 독일에 거주하는 유한나 씨의 '한 장의 결혼사진', 재미동포 고안 씨의 '구두'가 뽑혔다. 단편소설 부문 대상에는 재미동포 이수정 씨의 '타이거 마스크', 일반 산문 부문 대상에는 카자흐스탄 동포 전엘레나 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이 각각 선정됐다.

중고등부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은 최찬아(카자흐스탄)의 '누구에게나 겨울은 있다', 초등부 글짓기는 주세아(러시아)의 '나는 카잔카'가 차지했다. 한글학교 특별상은 중국 상해포동한국주말학교, 러시아 카잔불가한글학교, 카자흐스탄 알마티토요한글학교에 돌아갔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작품을 공모했고, 총 43개국에서 802편의 작품이 응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문학상은 24년의 역사와 많은 동포의 높은 관심 속에서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내년에는 더 의미 있는 문학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연말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한다. 수상 작품집은 11월쯤 책·전자책으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재외동포재단 자료실(research.korean.net)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을 모아 발간한 책자 모습

재외동포재단, 모국 초청 장학생 대상 '역사문화체험' 시행

재외동포재단은 모국에서 유학 중인 동포 장학생들을 초청해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재외동포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이 프로그램에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220명은 '하나 되는 세계 속의 우리'라는 주제로 서울·전주·여주 등을 둘러봤다.

이들은 10월 3~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학사지침 설명회, 참가자 간 교류하는 네트워킹, 학업과 진로를 주제로 한 멘토링 강연회 등에 참석했다. 이어 10월 7일부터는 전주와 여주에서는 한옥마을과 세종대왕릉을 견학하고 판소리도 배웠으며, 전통 민속 풍물 공연인 기적놀이 등도 관람했다. 10월 9일 한글날에는 국립 한글박물관에서 한글 캘리그래피를 체험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재외동포재단 초청 '2022 재외동포 장학생 역사문화체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은 "졸업 후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장학생들에게 민족의 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갱거루 소녀

이마리 / 청개구리

〈갱거루 소녀〉는 호주를 배경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의 아픔을 다루고 있다. 퇴각하는 일본군 몰래 탈출한 소녀 순희는 군함의 침몰로 인해 호주 해변에 표류하게 된다. 순희는 호주 군인에 의해 구조돼 호주 소녀보호소로 가게 된다. 소녀보호소는 혼혈아들을 강제로 모아 백인 가정의 일꾼으로 보내는 시설. 그곳 소녀들은 부모도 모르게 잡혀가 어딘가로 보내지는 우리네 위안부들과 처지가 비슷하다. 〈갱거루 소녀〉에서는 그녀들을 '도둑맞은 아이'라고 칭한다. 보호소의 미룬다 역시 순희와 다를 바 없는 처지다. 저자는 순희와 미룬다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와 호주 혼혈아 정책의 냉혹함을 드러내면서 역사 속에서 무참히 짓밟힌 인권과 그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갱거루 소녀〉는 순희와 미룬다, 그리고 이들을 돕는 혼혈 소년 놀라의 우정과 모험을 통해 독자들에게 삶과 생명, 자유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소년 독립군과 한글학교

이마리 / 행복한나무

〈소년 독립군과 한글학교〉는 일제강점기 독일에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언어독립운동가 이미륵 박사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다. 일제강점기를 다룬 역사소설의 배경은 대개 국내나 만주 지역 정도만 다룬다. 그러나 〈소년 독립군과 한글학교〉는 독일을 배경으로 해 그 시대의 세계정세를 엿볼 수 있다. 주인공 미루는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일본 경찰에 쫓겨, 중국 상하이로 거쳐 독일로 떠나게 된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미루는 이러한 비통함과 한을 글로 승화시킨다. 특히 고향 땅을 묘사한 글은 전쟁으로 피해해진 독일인의 정신을 치유할 만큼 아름다워 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이다. 미루는 반나치주의자인 자일로 교수와 한스를 만나게 되며 독일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한다. 총칼이 아닌 펜을 잡고 글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지킬 지식을 가르친다. 〈소년 독립군과 한글학교〉는 문화를 지키고 한글을 전파한 독립운동을 다룬 청소년 소설로, 지역만리 독일에서 펜으로 지식을 전파한 파란만장한 이미륵 선생의 일생을 지켜볼 수 있다.





재일동포와 일본 유학 한국 대학생, 도쿄 잼버리 대회서 교류

재일한국학생회(회장 민수지)는 10월 8~10일 사흘간 도쿄에서 재일동포 대학생과 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잼버리 대회를 열었다. 일본의 대학교, 대학원, 단기대, 전문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이 대회는 참가자 간 교류회, 주일한국대사관 견학,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업을 경영하거나 현지 기업에 취업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진로 탐색 멘토링' 등으로 진행됐다. 잼버리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했다.

뉴질랜드서 K-드라마·팝·한식 선보이는 'K-페스티벌'

뉴질랜드 'K-페스티벌 실행위원회'는 9월 10일 오클랜드 헨더슨 공연장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이는 '2022 K-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모두가 행복하자는 의미로 '해피 투게더'(Happy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렸다. 축제는 'K-셰프 쇼'로 문을 열었고, 오클랜드를 비롯해 뉴질랜드 전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셰프들이 참여해 전통과 퓨전 한식 정찬에서부터 불고기 및 갈비 및 후식까지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다. K-드라마·팝 관련 행사도 같이 열렸다. 축제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재외동포재단 등이 후원했다.



'고려인 동포의 애환' 사진전 안산 갤러리스틸서 열려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이사장 신은철)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 안산시 갤러리스틸에서 '고려인,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은 풀꽃이여라'라는 주제의 사진전을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에 사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를 무대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까르스진학교와 파리8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한금선 작가는 한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가족의 삶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했다. 카자흐스탄 출신 김하나 추상화가와 박 예브게이나 회화작가 등의 작품도 공개됐다.

세계한인여성회장협 · 미주한미여성회총聯, MOU 체결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WKWA · 총재 조규자)와 미주한미여성회총연합회(KAWA · 회장 권정희)는 9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거주 국가와 재외 동포들의 권익 신장,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상호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韓-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전통의상 패션쇼 1만 명 관람

한문화진흥협회(회장 정재민)가 9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한국-베트남 전통의상 패션쇼'에 관람객 1만여 명이 모였다. 올해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양국의 전문문화를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고, 양국 간 우호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유명 한복 디자이너인 함은정 씨와 신애수 씨, 최숙현 씨, 김정아 씨 등 문화 예술계 관계자를 비롯해 응우옌 부 통 주한 베트남대사 등 양국 외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패션쇼를 총괄한 정사무엘 한문화 외교사절단 단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응우옌 부 통 베트남 대사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열린 행사가 베트남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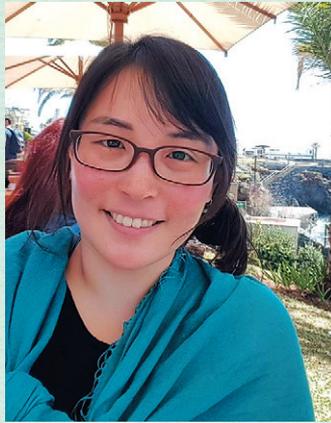
덴마크 입양 한인으로서의 삶

사람들은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 덴마크 양 부모님이 내 생명을 구해준 데 대해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또 그것이 매우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고 내게 종종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햇빛은 그림자도 만들기 마련입니다. 한국과 달리 세금 부담이 높은 덕에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이 무료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37시간에 불과한 덴마크에서 내가 자란 것은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어두운 점 또한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친아버지와 막냇동생은 한국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내 친부모는 이혼했지만, 덴마크인 양부모는 같이 잘 살고 계십니다. 덴마크에서는 내가 외동딸이지만, 한국에서는 형제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으로 덴마크에서 자라면서 '덴마크인다움'을 지켜야 할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내가 다가와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 한국인이구나. 그럼 수학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 연주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삶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 직면하기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입양인에게는 이런 말이 일상이 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내가 한국에 처음 와 거리를 걸었을 때는 마치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키가 작은 내가) 대중교통 수단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었고, 변기에 앉으면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해야 할 때마다 동화의 나라는 무너졌고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내가 저지르는 실수들과 한국 문화에 섞이려는 나의 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쳐다보았으며, 내가 왜 더 한국인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내가 덴마크인이란 점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자 크리스티안센
(한국명 오은주)

덴마크와 한국 어느 나라에도 100% 연결돼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점은 내게 고군분투이자 슬픔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사람들이 내게 한국에 관해 묻고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세계는 서서히 한국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K-드라마를 보고, 번쩍이는 고층 건물의 화려한 외관, 첨단 기술, 성형수술의 대중화 덕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모를 지닌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한국인들이 왜 얼굴에 칼을 대고 외모를 고쳐야 한다고 느끼는지, 왜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4위 안에 드는지, 왜 많은

한국 노인이 거리에서 골판지와 종이를 줍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화려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밥 먹었어?", "잘 지내니?"와 같은 한국말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나는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친부모님은 내게 "밥 먹었어?"라고 물었을 때마다 내가 "아뇨 아직요. 곧 먹을 예정입니다"라고 답했을 때 아마도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행로에서 어떤 길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나는 태어난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는 입양인으로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한국말을 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한국, 불문율 등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인 및 다른 입양인들과 유대감을 쌓고 싶습니다. 10월 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한 '2022 차세대해외입양동포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과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

제20차 세계한상대회, 11월 1~3일 울산에서 열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1월 1~3일 사흘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인 '제20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합니다.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올해 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 40여 개국에서 2천여 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가하며, 2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기업상담회나 기업전시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한상대회 개최 20주년을 맞아 '한상'의 정체성인 기업가·개척자 정신을 재조명하고, 참가자들 간의 한상 네트워킹 구축 기회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20년의 한상대회 역사에 걸맞게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유망 기업과 한상 경제인 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대회에서 한상을 통한 해외 진출,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 모국 투자 유치 등 울산을 포함한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러시아 지역 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 개최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중국과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한글 신문과 한국어 방송, 인터넷 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을 초청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합니다.

연수 기간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달가량이며, 참가 인원은 20명 안팎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CIS 지역 내 재외동포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매체에서 3~10년간 근무한 기자가 연수 대상입니다.

연수생들은 한국 미디어의 특징 이해, 올바른 기사 문장 쓰기, 사진 촬영법, 영상 편집법 등을 배우고, 국내 주요 언론사에 파견돼 현장 취재 등을 하면서 실무 능력을 키울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기획 취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며, 모국의 역사·문화 탐방도 나섭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왕복 항공료(일반석)와 숙박비, 보험, 체재비, 역사·문화체험 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10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 김성곤 이사장**
- 10월 5일: '2022년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
 - 10월 12일: '2022 차세대 입양동포대회' 참석
 - 10월 26일: 영화 '조선' 시사회 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